

장백산천지

제 346 호

2019 년 2 월 18 일

일요일

새해 리홍쯔(李洪志)대사님께 감사 드리며, 천하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복과 수혜를 받을 것을 기원하다

[밍후이왕] 파룬따파(法輪大法, 혹은 파룬궁-法輪功)는 리홍쯔 사부님께서 1992년 5월에 전하셨으며,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진, 선, 인(真, 善, 忍)' 원칙을 준수하면서 심신의 건강과 도덕승화를 가져왔다. 중국공산당의 20년간의 참혹한 박해를 경과하면서 중국 각 지역의 파룬따파제자들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 졌으며, 그들은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하고, 전통을 회기해 세상기풍이 몰락하는 탁

류 중에서도 우뚝 서있다. 20년의 비바람 속에서 그들은 사부님께서 전하신 불가수련대법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실증했으며, 사부님의 은혜에 충심으로 감사 드렸다. 2019년의 전통새해가 다가올 즈음 밍후이왕은 중국대륙 30개 성, 자치주, 직할시의 대법(大法)제자들이 바다 저편에 계시는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 보내드리는 새해 문안 소식을 이루 해야 할 수 없 이받았다.◇



설 문안

언니와 나

언니와 나는 학자가문의 출신이다. 언니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착했다. 언니는 성도에서 이백 여 km 떨어진 시골 마을 훈장에게 시집갔다. 형부의 집에 땅 열 마지기 되게 있었다. 언니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일꾼 한 명을 고용했기에 토지 개혁 때 '지주 성분'을 받았다. 언니는 '오류분자(다섯 종류의 나쁜 사람)'란 감투로 온갖 곤욕을 치르고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한 가족 3대 여덟 식구가 두 칸 흙 벽돌 초가집에서 살았으며, 한 끼를 먹으면 다음 끼니를 걱정했다. 당시 나와 남편은 성 직속기관에서 직무를 맡고 있었다. 나는 요행 매번 '운동'의 시달림은 피했지만

활에 놀란 새가 됐다. 자신을 보호하고 연루되지 않기 위해 육친도 몰라라 했다. 언니를 돌봐주지 못했으며, 언니 집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가끔 집에 답장 편지를 써도 다른 사람이 뜯어보고 말꼬투리를 잡을 까봐 편지 끝에는 항상 언니에게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죄를 인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진선인(真, 善, 忍)을 수련하는 외조카

후에 언니 집은 생활이 나날이 좋아졌다. 언니의 두 아들과 세 딸이 모두 성시에 들어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 간부가 되었거나 장사를 해 부자가 됐다. 특히 그들은

[밍후이왕]나는 올해 여든 여덟 살 퇴직 간부다. 성도에 있는 넓고 쾌적한 청장(厅长)주택에서 높은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외아들, 남편, 둘 째 딸이 암으로 수술하고, 외동 손녀딸이 이혼하고 남편도 세상을 뜨는 불행이 연달았다. 늘그막에 나는 비애 속에서 속절없이 살았다. 때로는 벽을 마주보고 탄식하고, 달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지난 일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어쩌다 기쁜 일이라면 옛 친구가 방문 오는 것이다. 특히 매년 새해를 앞두고 언니의 두 아들이 신년 인사를 오는 것이다.

모두 '진선인(真善忍)'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몸이 건강하고 사람이 진실하고 선량해 이웃들에게 칭찬을받는다.

언니와 형부가 세상을 떠난 뒤 외조카들은 우리 두 노부부에 대해 냉대하지 않고 더욱 존경했다. 설 명절이 되면 두 외조카는 지방 특산품을 들고 차를 운전해 수백리 길을 달려와 설 인사를 했다. 매 번 짧은 시간의 상봉이지만 외조카는 항상 소박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해줬다.

매번 외조카를 전송하고 나면 우리 노부부는 늘 감격해서 말했다. "조카는 덕으로 원한을 갚는 옛 풍조를 갖추었어요!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효도해요. 지금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인정이 없는데 수련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보기에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선전하는 것을 소홀히 믿으면 안 되겠어요.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아주 좋아요!”

따뜻한 설 인사

2016년, 남편이 병으로 돌아갔다. 설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 외롭고 쓸쓸했다. 설달 20일 이후부터 날씨가 좋지 않고 연일 며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올해는 외조카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조카는 외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길도 좋지 않는데 천리 길을 왔다 가기가 싫지 않으니 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 가도 또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 속에서 설달 26일이 됐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보니 외조카가 서 있었다. 눈보라 치는 날, 명절에, 쓸쓸한 적막 속에 있던 나는 먼 곳에서 찾아온 육친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외조카에게 말했다. “지독하게 추운 날씨에 집 안일도 바쁘면서 그 먼 길에 나를 보려고 찾아오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큰 조카가 말했다. “후배로서 저의들이 응당 효도해야죠. 이모와 저의 어머니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친 혈육인데 저의 어머니가 사망하셨으니 이모께 효도하는 것이 곧 저의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죠.”

둘째 외조카가 말했다. “가정에 노인은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두 집 몇 십 명 식구에 이모님 한 분뿐이니 더욱 소중하지요! 이모부께서 세상을 떠신지 몇 달 되자마자 또 설이 다가오니 이모님의 마음은 더욱 괴로우실 겁니다. 우리들이 만나 뵙고 문안을 드리면 이모님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실 것이니 올해는 우리가 더욱 와야 하죠.”

외조카의 말에 나는 뭉클해지면서도 가책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어렵게 지내

던 그 시절에 이모는 도와도 못줬는데 너희들은 정말 원망이 없는 거냐?” 둘째 외조카가 대답했다. “이모, 솔직히 이모부와 이모에 대해 우리들은 자랑스럽기도 했고,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우리의 가정에 ‘고위 간부’ 친척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나, 이 고위간부 친척이 몰속의 달이요, 거울 속의 꽃이라는 것이 슬펐어요.”

큰 외조카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실망했던 모두 우리가 연공을 하기 전의 일이었어요. 대법을 수련한 후 그런 편협한 이기적인 감정은 바람처럼 날아갔어요. 사부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가르치셨고,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했어요. 당시 친정의 ‘나쁜 성분’ 딱지가 붙은 이모가 ‘유일 성분’을 논하는 고압의 정치운동의 분위기에서 살얼음 밟듯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친정식구에 대한 무관심과 ‘선 굿기’는 모두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며, 그것은 결국 그 사악한 정책 때문이지요. 수련을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정말 이모를 이해하게 됐어요.”

외조카의 말을 들으면서 그 돌아보기도 싫은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나의 마음은 안타깝고 애처로웠다. 그러나 외조카들의 이해와 관심에 나의 마음에 맺혀 있던 오랜 매듭이 풀리면서 몸은 더 없이가벼워졌다.

밍후이왕 한 귀퉁이를 빌어 감사를 드리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달그음이 됐다. 외조카도 또 설인사를 올 것이다! 이 며칠 동안 나는 혼자 좋아하면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들을 기다리면서 나는 생각했다. 대법의 복을 받아 나는 조카에게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대법에 감사하고 천하에 복을 주신 리 대사님께 감사 드린다. 촌지를 표하기 위해 특별히

밍후이왕 한 귀퉁이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리 대사께 설 문안을 드립니다. 대사께서 새해 즐거우시고 만사여의 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중국 설 기간 발생한 악보

(밍후이왕) 중국의 전통적인 설은 원래 염제(炎黃)자손들의 즐거운 명절이자 중국 전통문화에서 신을 경배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이 전체 국가 기관을 동원해 파룬궁을 박해했고, 이 박해가 이미 근 20년간 지속됐으며,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이 비참하게 살해되고 박해 당했다. 박해에 참여하여 흉악을 저지른 자들도 중국공산당에 기만당해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에게 비참한 악보를 빚어내어 전통적인 설 명절에도 악보가 가져다 준 쓴맛을 삼켜야 했다.

파룬궁수련생을 참혹하게 박해한 최송철 부부가 초닷셋날 교통사고로 불에 타 죽다

최송철(남, 조선족)은 지린성 투먼시 구치소 소장이었다.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해 2009년 1월 30일, 초닷셋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40세인 그와 그의 아내는 승용차를 운전해 샤가(下嘎)마을로 가는 길에 차가 고속도로의 안전 난간을 뚫고 길 아래 철제 난간이 있는 곳에 떨어져 네 개 차바퀴가 하늘을 향했다. 차문이 잠겨 있었기에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구조하려고 달려온 마을 사람과 택시 기사들이 큰 도끼로 문을 부시는데 갑자기 차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사방으로 불길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차에 접근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최송철 부부가 큰불에 삼켜 버리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최송철이 파룬궁수련생을 고문으로 박해한 응보로 아내까지 연류됐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까지 고아로 됐다. ◇

‘텐안먼 분신자살, <초점방담>은 사전에 내막을 알았을까?’

[밍후이왕] 18년 전 설날 그믐 날, 텐안먼(天安門)광장에서 국내 외를 놀라게 한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신화사(新華社)는 바로 파룬궁을 모함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7일 후 1월 30일, CCTV(중앙 TV) <초점방담(焦點訪談)>은 분신자살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증오를 더욱 선동했다. 분신자살 동영상에는 사건 현장의 클로즈업 장면이 있었는데 이 화면들은 누가 촬영한 일까? <초점방담>은 최초로 직접 수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방담> 분신자살 프로그램의 문자판 웹 페이지 끝에 있는 ‘자료 후기’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초점방담> 기자는 제일 먼저 분신자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생생한 첫 번째 자료를 수집했다.”

후 2시 41분이다. 왕진둥(王進東)이 불을 붙이자 1분도 안 되어 불을 꺾고, 그런 후 한 경찰차에 실려 구급센터로 운송되었다. 이 기간 중앙 TV 동영상에는 왕진둥이 땅에 엎어져 구호를 외치는 클로즈업 촬영이 있었다. 금방 왕진둥을 처리하고 나자 2시 47분에 또 다른 4명이 불을 붙여, 2시 47분에 3대의 구급차가 서둘러 도착했다. 불 수 있는바 기자는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했다.

감시 카메라에 나타난 시간을 분석하면 왕진둥의 처리 과정은 총 6분이다. 왕진둥은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현장에 출동한 <초점방담> 제작진을 기다려 그가 구호를 외치는 클로즈업 촬영을 했다. 다시 말하면 4~5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초점방담> 제작진이 임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첫 인터뷰를 했다. 이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역시 경찰의 수많은 검문과 저지를 받았다”, “리위창과 내가 돌진해서 현장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은 우리의 카메라 렌즈를 꺾어 하늘을 향해 고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화룡 조명기구 시장의 화재사고에서 기자 리위창의 경험은 정상적이고, 중국 공산당의 관례에 부합된다. 또한, 동일인인 리위창도 바로 <초점방담> 텐안먼 분신자살 사기극의 주요 기자이자 취재인이다. 그는 4~5분 안에 “통지를 받고, 사람을 배치하고, 텐안먼에 도착해서 경찰의 무수한 질문과 저지를 돌파하고, 수십 미터를 걸어서 불을 붙인 자에게 접근해야 하고, 녹음, 녹화를 근접 촬영해야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등 일련의 정해진 동작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절대로 불가능해

중국에서 사전 허락 없이 민감한 지점에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촬영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9년 1월 9일, 베이징 펑타이(豐台) 길목의 화룡(華龍) 조명기구 시장의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초점방담> 기자 리위창(李玉強)과 카메라맨 싱쉬둥(邢旭東)은 화룡 대화재에 관한 회상 글에서 리위창은 대화재가 오전 10시에 일어났고, 그가 점심 12시 20분에 마침 차를 타고 사고지점을 지나가다 본 후 즉시 지도자에게 지시를 요청하자 지도자는 바로 인원을 배치해주어 제작진은 오후 1시 20분 좌우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싱쉬둥은 “첫 번째 자료를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더 가까이 가야

단 하나의 해석만 가능할 뿐이다. 그것은 리위창의 <초점방담>팀 사람들이 이미 분신자살자 옆에서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과 조율이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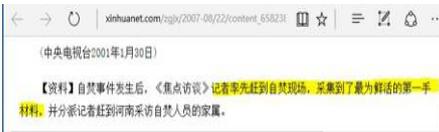
서방기자가 현장촬영을 부인하다

<초점방담> 분신자살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그 클로즈업 화면은 바로 해외의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 TV와 신화통신은 클로즈업 화면의 출처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 중심인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양청완보(羊城晚報)’가 당시 텐안먼 광장에 있었던 CNN 기자 (뒷면에 계속)

▲그림은<초점방담>분신자살의 자료 후기

중앙 TV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전 과정은 불과 7분이었는데 <초점방담> 분신자살 동영상에는 수평 앵글과 하이 앵글로 근접해서 클로즈업 촬영을 한 이외에 또 멀리 보이는 경치도 있었다. 멀리 보이는 그런 경치는 광장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는 “카메라 71, 2001년 1월 23일, 몇 시 몇 분”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다. 이 시간은 바로 CCTV 기자가 사전에 내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사전에 내막을 알았기에 중앙 TV 기자는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어 감시 카메라에 나타난 시간은 오



← <CNN>2001년 2월 9일 보도, CNN은 <초점방담>의 클로즈업은 CNN에서 왔다는 것을 부인했다.

2018년에 933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신고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933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판결을 받았다. 그 중 65세 이상 파룬궁수련생이 99명이며, 24명 파룬궁수련생이 법에 의거해 원홍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이유로 보복성 판결을 선고 받았다. 불법 재판은 942 차례 진행됐고, 법정 불법 벌금은 2,463,000 위안이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해 435 차례 무죄 변호를 진행하여, 파룬궁수련생의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불법 판결을 선고 받은 이 파룬궁수련생은 박사, 전문가, 교수, 교사, 연구생, 연구소의 레이더 설계사, 기업가, IT 계 엘리트, 군대대학교 교관, 중등 수석엔지니어, 의사, 판사, 경찰, 군 퇴역 출신 지방 간부, 국가 공무원, 노동자, 농민, 직원 등 사회 각업종 인사가 있었다. 중공은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해,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징역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냈다.◇

(앞면의 계속) 에게서 압수한 비디오테이프에서 그 클로즈업 화면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설은 CNN의 뉴스 담당인 이슨 조던(Eason Jordan)에 의해 부인되었다. 이슨 조던은 CNN 카메라맨이 사건 발생 후 거의 즉시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텐안먼 광장에서 외국 기자는 물론 중국인이라도 돌발적인 사건에 부딪히면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을까? 포즈를 취하자마자 바로 압수당할 것이다.

<초점방담>이 사전에 내막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초점방담>은 사전에 내막을 알고 공안 시스템과도 협조하였다. 현장에서 사복경찰이 류춘링(劉春玲)을 때려 숨지게 했다. (녹화 화면을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 류춘링(劉春玲)은 다른 사람이 단단한 물건으로 머리를 쳐 넘어진 것이다.) 이것은 증오를 선동할 수 있는 최대의 비정(悲情) 효과를 만들어 냈다. 더욱이 가장 민감한 텐안먼 광장에서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최고위층에서 계획된 하나의 음모라는 것을 여준다.

<초점방담>은 분신자살 사기극 프로그램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파룬궁’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파룬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선전공작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고, 이후 파룬궁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프로그램의 스타일을 마련해 중앙 주요 지도자 동지의 호평을 받았다.” 이 ‘중앙 주요 지도자 동지’는 바로 장쩌민, 뤼간 등이다. 그들은 또 분신자살 사기극의 배후 주모자이다. ◇ 문 / 어우양페이(歐陽非)



‘파룬따파 하오’는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밍후이왕](대륙 투고) 한 파룬궁 수련생의 이웃집 처녀는 20여 세인데,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아 집안을 초상집으로 만들었다. 그 파룬궁 수련생은 곧 그녀의 아버지에게 진상을 전하고, 리 대사님께서 아이를 구해주실 테니 온 가족이 ‘파룬따파 하오! 찐싼런 하오! (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온 가족이 모두 정성껏 외우면서 리 대사께 아이를 구해 주실 것을 청했다. 나중에 그녀가 외지에서 검사하니 의사는 병이 없다며, 오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말을 믿으면서 대법 사부님께서 아이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파룬따파 하오! 찐싼런 하오!’도 외우지 않았다. 처녀는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시에 겨우 28세였다. 그 처녀의 아버지도 뇌혈전과 고혈압에 걸렸는데, 병이 깊어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해 수의 등을 모두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 파룬궁 수련생은 또다시 그들을 찾아가 진상을 알려주면서 온 가족에게 ‘파룬따파 하오, 찐싼런 하오’를 외우라고 했다. 이번

에는 그들이 모두 그 말을 믿고 정성껏 외웠는데, 모두 마음을 비우고 진심을 담아 외웠다. 머지않아 그 집 아버지는 다시 살아났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온 식구는 기뻐서 큰 소리로 ‘파룬따파 하오 찐싼런 하오’를 외웠다. 그들은 말했다. “리홍쯔 선생님은 정말 세상에 내려오신 부처님이시고, 우리 식구를 구해주셨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리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나타난 신기한 일을 널리 알려 더욱 많은 사람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

